

# 『韓國學校建築을 阻害하는 洋式建築의 그要因分析과 方向에 關한 研究』

—韓國學校建築의 史的整理를 통한 近代初期를 起點으로 하여—

韓國學校建築의 哲學的 背景 2

劉香山 (誠信女師大副教授)

## 近世以後의 哲學的 背景

### 1) 教育思想面에서

學校建物を 近世以前과 近世以後로 나누어 생각할때, 前者는 東洋中心의 儒佛建築樣式을 가졌고, 後者는 前者에 다 더(加)하여 西歐中心의 天主教 및 基督教 思想을 가진 建築樣式을 가졌다고 본다.

이제 이러한 두 時代를 区分한것 중에, 여기서는 後者에 對하여 論해 보기로 한다.

後者를 論함에 앞서 먼저 說明을 할것은 “教育思想과 (建築)樣式의 關係”이다. “樣式”이란 種類가 아니고 “理念”이다.

이 理念은 文化形成의 主体인 民族이 處한 社會에서 얻어진 모든 것을 土台로 形成된 “藝術的 視”의 表現이다. 그러므로 이를 찾는 精神姿勢가 곧 民族形成에 基本이 되는 教育思想인 것이다. 따라서 教育思想은 곧 建築樣式化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教育思想이 變化하면 곧 建築樣式도 變하는 것은 當然한 樣式變化의 法則性인 것이다.

이에 견주어서 韓國의 學校建築은 둘째로 들린다 하더라도 (學校)建築의 母體인 住宅建築 조차도 이와같은 “思想” 곧 “樣式化”할 수 있는 建物を 建築하기 어려운 實情이다.

따라서 韓國學校建築은 (教育)思想이 곧 (學校)建築樣式이 되고 있지 못하므로 無秩序하고 多樣해 보인다.

더욱이 大部分의 學者들이 認定하듯이 後世에 이를 수록 더욱 심한 느낌이 있다. 그리고 影響을 받은 文化系統은 中國과 關聯해서 그 政治的 紐帶關係를 달리할 때 마다 各各 다른 要素들이 加味되었으며, 政治時期를 달리 할때마다 信仰이나 宗教 또는 主導의 思想이 심하게 變遷을 거쳐왔으며 많은 戰亂을 通하여 原狀은 歪曲 變質 되었기 때문에 더욱 思想과 樣式은 全然 無關한 것으로 보여져 왔을 뿐이다.

그리고 둘째로 “樣式”에 關한 說明 다음에 說明을 해야 할 것은 東西洋의 建築樣式의 比較이다.

東洋의 儒佛建築 樣式 및 韓屋 樣式은 階層的(hierarchy), 閉鎖的, 内外區分的, 家族中心의, 個人中心의, 靜的, 貴族的, 非能率的, 非機能的, 自然中心의인데 反하여, 西洋의 天主教 및 新教中心思想의 建築樣式은 平等的, 開放的, 集團中心의, 國家中心의, 人文中心의이다.

韓國은 그 規模에 있어서 지나치게 裝大하지 않고, 重壓感을 주지않고 大部分 人間의 尺度로 헤아릴 수 있는 크기와 內容을 가지고 있는 것이 普通이고, 外觀이 아담하고 親近感이 가고 또한 位置의 選擇에서부터 自然을 尊重하며, 地勢에 잘 適應 調和하도록 많은 配慮를 하게되고, 自然의 勢를 제압하고 自然과 對抗 競爭하는 方向으로 建築이 試圖된 例는 없다. 韓國建築은 特히 風水地理說을 重要視하며, 現世의 建築인 陽宅을 定할때나, 死後의 墳墓인 幽宅을 마련할때는 風水說의 理致에 順應하였다.

그러므로 어느 면에서 보면 時代와 環境 및 風習 등 여러가지 要素가 綜合되어 本能的으로 表現되는 것으로서 作為가 없고 人爲的 理智와 技巧가 크게 作用한 것이 아니어서 어느 면에서는 어수룩한 면도 있겠으나 순박한 면이 매우 많았다. 特히 家屋같은 境遇의 平面計劃은 物理的인 機能보다는 家庭生活의 傳統的 概念, 祖上, 이웃사람, 그밖의 家族構成員에 對한 社會的인 活動概念에 그 根源을 두고 있다. 이는 “儒教思想으로 因한 内外의 生活空間이 区分된 까닭이다.”

韓國의 自然的 條件이 크게 볼때는 “좁은 한 國土內에서 比較的 同一한 環境에서 자라났다고 보여지나 좀더 세밀히 그 內容을 보면 그 立地的 條件에 따라서 天差萬別이다. 그리고 國土面積에 比해서 地勢의 變化가 심하며,

国土條件이 多樣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各異한 表現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韓國思想의 主流와 同一한 樣式의 主流를 볼 수 있다.

단, 여기서 注意할 일은 “自然的 條件이 過去로 올라갈 수록 強하게 作用하고 있다”는 事實은 反對로 人文的 條件(社會的 條件)이 現代로 내려올수록 強하게 樣式에 作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過去의 韓屋 및 佛敎建築 樣式은 現代에 와서 人文的 條件에 強하게 影響을 받아 그 影響을 받은 만큼 樣式에 變化를 가져와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變化에 比例해서 韓國學校建築樣式도 이러한 過程을 밟으므로해서 韓國敎育思想(弘益人間思想)과 一致할 수 있다고 본다.

近世以後 韓國 땅에 西歐思想과 宗教가 導入된 以後 學校建築은 無條件 西歐建築 樣式에 빠져버렸고 지금도 그것을 敎育思想과 樣式의 關係를 모르기 때문에 東洋 韓國 敎育思想이라는 나무를 西歐建築樣式이라는 화분에다 심다보니 어울릴수 없는 異質 또는 變質의인 敎育思想과 樣式을 낳게 하였다.

事實은 韓國에서 이러한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서는 아니라도 “建築에 關한 傳統論 내지 傳統意識이 싹트기 始作한 것은 解放되기 20년이 지난 1965년경 부터이다.”

그러면 왜 이토록 現代에 와서 認識하게 됐는가 하는데 새로운 重要한 理由가 있었다. 그것은 앞에서 이야기한대로 “우리의 傳統建築과 西歐建築이 根本的으로 異質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重要한 理由는 韓國建築의 獨創性이나 價值를 認定치 않으며 韓國建築의 傳統要素를 찾는것을 無意味한 것으로 접어놓고, 意識的으로 外面하는 態度 때문에 깊은 研究를 여기에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態度는 韓國建築의 本質을 깊이 理解하지 못하고 다만 皮상적으로 보아 넘겨 中國建築의 矮小化라든가 變造한 程度밖에 생각않하는 無關心 속에서 韓國建築은(특히 學校建築은) 방임되어 왔기 때문이다.

以上과 같은 敎育思想面에서 갖는 韓國과 西歐의 樣式은 出發點 自体에서부터 反對方向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自然環境보다 人文的環境의 큰 影響으로 兩者의 思想面에서 共通點을 많이 發見하고 相互 융화하고 있다. 이것은 國際性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 나라이건 國際性을 띤 배경 根底에는 반드시 그나라의 特殊性이 깔려 있다. 이러한 點을 감안해 볼 때 韓國은 特殊한 樣式이 없기때문에 弘益人間思想을 키울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敎育思想을 키우기 위하여 學校建築樣式은 韓國 家屋의 特殊性을 살려야 한다.

## 2) 建築文化面에서

以上으로 韓國의 樣式에 阻害를 주는 西歐樣式은 어떠

한 建築文化의 配景을 歷史的으로 가져왔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東西古今을 막론하고 建物の 原形은 住居에서 始作된다. 原始時代의 住居는 自然的 條件에 強한 影響을 받았으니 自然을 하나의 生命체로도 보고, 무서운 적의 대상으로도 보며, 동시에 自然을 하나의 믿음, 즉 신의 對象으로도 보았던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自然에 對한 이와 같은 思想은 곧 住居形態(樣式)로 나타났으니 一例를 들면, 神의 住居(House of God)라든가, 古代 希臘 羅馬時代의 神殿, 또는 高壇의 概念으로 自然神을 모시는 높은 山, 丘陵, 山頂(High place)等도, 메소포타미아의 Ziggurats, Maya의 Pyramid等도 다 이러한 思想에서 나온 樣式이다.

그리고 墳墓式 神殿으로 聖者의 死體위에 神殿을 만드는 것이다. 즉 世界各地의 王, 英雄의 死體위에 높은 土塚를 쌓아 추모하는등, 이것은 東洋에서 볼 수 있는 佛敎의 塔婆(Stupas)와 같다.

또는 會堂의 形式(Meeting Place)도 禮拜者들이 모여 禮拜하는 場所인 宗教建築의 “Synagoue”가 이러한 神의 思想을 담은 樣式이다.

初期의 基督敎人들은 羅馬의 “Basilica”를 利用하여 發展시킨 教會建築을 形成하였으며, 後에도 물론 混合建築樣式을 취하였던 것이다.

### (1) 古典時代의 建築文化

希臘의 宗教는 民族의 團決에 가장 큰 役割을 하였다. 希臘人은 未來의 生活이 있음을 믿고 영혼의 地下生活을 위하여 供物을 올렸으며, 近親者의 保護와 祝福을 빌었다. 또 希臘人은 現在의 生活의 支持者로서 神을 섬겼으며, 神을 人間的으로 解釋하여 神은 人間보다 偉大한 能力을 갖고 있으나 人間과 같이 道德과 血族關係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으며 都市國家의 守護神으로 崇拜하였다.

“에에게 建築”에서 보면, 이 時代는 機何學의 文樣, 自然形態모방, 海草, 魚貝等이었고, 希臘建築(Hellenic Architecture)은 宗教建築으로 人間과 神을 同格으로 생각하여 神의 住居를 建築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神의 住居의 樣式의 特徵은 特有한 柱列을 使用하였다는 것이다.

그 種類는 希臘 柱範 오더(order)樣式으로 “도릭 오더(Doric Order), “이오닉오더”(Ionic Order), “코린시안오더”(Corinthian Order)로 나뉘어진다. “도릭오더”는 柱身(Shaft)과 柱頭(Capital)로 二分되었고, 礎盤이 없고 가장 웅장하며, “이오닉오더”는 礎盤(Base)과 柱身(Shaft), 柱頭(Capital)로 三分되었다. “코린시안오더”는 礎盤, 柱身에는 큰 變化가 없다.

柱頭 장식은 特有한 意匠으로 되어있다. 여기서 特記할 것은 “Gymnasia”이다.

이는 最初에는 青年들의 體育訓練場으로서 平面은 큰

正方形的 内庭을 싸고 列柱席 “Hall” 등이 配置되었고, 浴室이 있어서 訓練後의 浴室使用이 可能했다.

後期 希臘建築(Hellenistic Architecture)은 알렉산더大王 死後부터 羅馬帝國的 支配前까지로, 이 建築의 樣式은 希臘의 “오더”를 中心한 樣式에 量的인 東洋建築을 加하여 外觀, 內容 등이 모두 特記할 만 하다. 그리고 希臘人들이 屋外生活을 많이 즐겼기 때문에 柱廊 軒窗이 많이 發達하였다.

羅馬는 大公共建物を 建築하였으니, 즉 극장, 도로, 수도공사, 神殿, 공공浴場, 圖書館, 재판소, 記念物(凱旋門) 등등이다.

이들 建築樣式은 羅馬오더였었다.

羅馬建築은 希臘의 美的 統一과 에트루스카의 構造的 知識의 두 要素를 結合하여 建築史上 훌륭한 建築樣式을 가졌었다.

### (2) 中世時代의 建築文化

中世時代 初期의 基督教은 雜多한 宗教로서 아우구스트스 治世에 發生한 宗教이다.

中世에 들어서서 西洋建築史上 가장 重要한 歷史的 事実は 이 基督教에 依해 建立한 樣式을 말할 수 있다.

初期 基督教가 國教로 認定된 後부터 羅馬建築은 이를 基礎로 發展하였으며, 希臘과 羅馬의 장식面에 傳統을 망각하고 室内장식은 色彩的 效果로 獨創的인 깊이를 나타내고 過去의 장식面의 傳統과 全然 絶緣하여 中世建築을 위한 自由로운 發展의 土를 마련하였다. 이때는 宗教의 基本 樣式으로 모자이크使用이었다. 모자이크를 使用하여 床面, 壁面, 天井, 聖者, 使徒들의 画像 등에 장식했고 聖書에서 보는 유쾌한 포도, 감람나무, 양, 비둘기, 물고기, 또 基督教 상징인 I. XP,  $\alpha$ ,  $\omega$  등 組合文字 까지도 장식文樣되었었다.

비잔틴 建築에서 보면 돔, 아퀴, 보올드 등의 建築形態이고 사라센 建築에서 보면 宗教建築인 “Mosque”의 建築에 있었으므로 그 建築을 理解하려면 이슬람教의 性格을 아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 이슬람교는 靈魂救濟의 宗教로서 既存의 아라비아 地方의 信仰을 綜合 순화한 것으로 그 바탕은 유대교, 기독교 및 이방종교의 要素를 기이하게 混合하여 만든 것으로 보다 명확하고, 生活에 直결된 唯一神觀과 個人 및 會衆의 예배에 對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羅馬, 初期 基督教, 비잔틴 페르샤 등의 建築樣式을 계승하였기 때문에 한국과 같이 독자성은 약하다.

로마네스크 建築은 繪畫, 彫刻, 純粹美術보다는 建築 特히 教会堂 建築이 왕성하였고, 樣式上의 不徹底는 수직선을 強調하여 하늘을 지향하는 宗教的 內容을 표상하는 고딕 건축양식의 出現을 보았다. 特히 이 당시에는 都市建築이 發展하였다.

로마네스크樣式에 뒤이어 13世紀에 發生한 Gothic建築은 주로 尖頭形 아퀴(Pointed Arch)를 出入口, 窓, 기타 모든 開上部에 使用하였다. 지붕은 높게 수직적, 昂揚을 意味하는 尖塔, Pinnacle, Steeple, Spire 등을 教会建築에 使用하였었다.

Gothic樣式은 自然을 사랑하였고, 따라서 自然的形態, 自然曲線을 使用하기를 좋아하였다. 장식은 喜悅과 安全과 “Integration”을 뜻하는 새로운 形式으로 表現되었었다.

### (3) 近世時代의 建築文化

近世時代의 建築은 루네쌍쓰建築으로 말하게 된다. 루네쌍쓰라면 15世紀 이태리에서 發生하여 佛蘭西, 獨逸, 英國 등 西獨 各地에서 傳播된 中世紀 思想에 反抗하는 新風 思想이다.

中世文化는 基督教의 神本主義的인 思想에 입각한 新世界와 새 樂園을 建設하려는 精神에서 發展되었고, 루네쌍쓰는 人本主義的인 思想에 입각하여 宗教로부터 人間을 解放시켜, 人間의이며, 自由精神이 넘치는 새 世界를 憧憬하여 발전시킨 時代이다. 따라서 希臘 羅馬 社會의 精神을 再生시킨 것이다.

고딕建築은 그 外觀에 수직선을 意匠의 主要素로 하여 仰高的인 宗教的 內容을 表現하였으나, 루네쌍쓰는 그와 正反對로 水平線을 意匠의 主要素로 하여 人間의 社會觀과 그橫的인 紐帶를 상징하며 그 휴머니티의 內容을 表視하고 있다.

둘째로 고딕에서는 各 國의 形態의 美的 統制에 힘을 썼으나 루네쌍쓰 建築은 그全體的인 平面計劃 및 그外觀의 構成에 있어서의 그比率 美的, 均齊(symmetry) 등을 重視하였다.

세째로 고딕은 架構의 美에 宗教的 熱情을 充溢시켜 表現했으나, 루네쌍쓰는 힘의 均衡에 依한 靜的 美的 表現 安定感을 가지고 있다.

바로크 建築은 루네쌍쓰建築의 轉化이다. 루네쌍쓰는 理智的인 것인데 反하여 바로크는 熱情的인 것이며, 前者가 對象에 法則을 求함에 反하여 後者は 對象을 視察하는 사람의 主觀에 法則을 求하였다.

다음에 “Rococo”建築 樣式이 뒤를 이은다. Rococo는 Baroco의 轉化로서 前者가 個人의 “私”를 위주로 한 樣式으로 個人生活, 密通, 祕密, 個人의 經驗 등이 人生의 主要한 目標가 되었으므로 그 個人이 占有하는 空間内部는 實質的으로 아담하고 아름답게 꾸며져 있으며 反하여 後者は 人間의 空的生活을 위주로 發展된 樣式으로 壯大하고 虛飾的이다.

### (4) 古典, 浪漫, 折衷主義 時代의 建築文化

이 時代는 로코코, 바로크 등의 自由로운 技巧한 手法이 18世紀 中엽에 들어가서 퇴폐적이 되어서 古典부흥이 모색되게 되었던 것이다.

浪漫主義는 古典主義의 客觀的인 理智主義에 對하여

主觀인 情緒主義가 中心的이며, 따라서 그들의 取材는 民族의 史話, 傳說이며 이것들이 가진 情緒的 매력에 예술의 中心生命으로 생각했고, 浪漫主義는 中世에 있었다.

折衷은 過去의 世界에 展開된 모든 樣式의 청산인 동시에 미래 양식에 대한 模索을 하던 때이다.

#### IV. 韓國 學校建物の 建築學的 水準과 그 特徵

韓國이 近世初期를 起點으로 하여 一般建物 特히 韓國 땅에 세워진 外交關係의 商業的 政治的, 宗教的 其他 等에 關係되는 建物들은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같이 그러한 西歐 樣式 즉 天主教와 新教의 高딕建物 또는 루네상스 및 折衷, 樣式 等을 取한 建築樣式을 갖고 있다.

##### 1. 培材學堂

培材學堂은 學堂設立 다음 해인 1886年 8월에 工事を 着工하여 같은해 11月 1일에 竣工하였다. 이 建物은 벽돌 單層의 約 100坪되는 建物로 서울에서는 가장 初期의 벽돌建物로 믿어진다.

이 建築의 監督은 語學教師로 있었다는 宋憲成氏가 담당하고, 工事は 道 評수로 沈宜錫(後에 內務衙門 技師)氏가 맡았으며, 그림에 金德甫라는 木手가 있었다고 한다. 洋屋建築의 經驗이 없었던 이들을 아펜셀라氏가 直接 指揮 監督하였음은 물론이다. 이 建物은 方形平面에 현관部分만 포오치로 된 單純한 것이지만 形態의 調和되지 않은대로 現관部와 各窓의 아아치, 처마의 난간, 壁體의 窓틀(Quion)等에 石材를 써서 單調로움을 면하고 있다. 洋屋建築을 目見치 않은 사람들에 依한 것만큼 어려운 工事임에 틀림없었으나, 3個月 미만에 끝나치었다고 하니 速한 工期였다고 본다. 이 建物은 現在 大講堂을 짓기 위해서 1932년에 破毀되었다고 한다.

##### 2. 現 凱托릭 醫大

現 凱托릭 醫大는 처음에 學校建物로 出發되지는 않았다. 이는 “聖堂”으로 出發되었던 것이다. 원래 明洞聖堂터는 吏曹判書 等의 벼슬을 지내다가 1874년에 죽은 尹定鉉의 집이 있던 곳으로, 1883年 以前에 김·가밀로라는 韓人 명의로 בל랑主教가 매수하였던 것이다. 1892年 韓佛修好條約이 締結되자 곧 산봉우리를 깎아 垜地를 造成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리하여 1894年 봄에 聖堂 建築工事を 着工하였는데, 當時 朝鮮에는 洋屋築造의 經驗者가 없었으므로 中國에서 벽돌工과 米장이, 木手를 데려와서 일을 하였으나 그들의 技術도 新통한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이 工事は 원래 거창한 工事인데다가 이들을 指導하면서 不充分한 施設로 일을 進行해야 했었고, 겨울에는 工事を 중지할 수 밖에 없었으며, 그위에 1894年 淸日戰爭으로 因하여 中國人 職工이 還國하는 關係로 약 1年間 工事が 중단 狀態에 있게 되어 1896년에야 비로소

壁體工사가 대체로 完了하게 되었다. 內部工事까지 마치고 聖堂이 完成되어 聖程式을 올린것은 1898年 5月 29日 이었다. 着工한지 6年만에 이 亂工事が 完工을 본 것이다. 앞에서 말한것 처럼 벽돌은 自作自給이었으며, 그 모양은 20여種에 달하였을뿐 아니라 붉은벽돌과 회색벽돌의 二種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現今의 實際建物에서 觀察하건데, 窓틀 部分과 內部 簇柱(Clustered Pier)의 角部, 建物의 隅部 等은 各樣으로 高안된 異形벽돌로 장식되어 있고, 一般壁體와 튜렛(Turret)=隅小塔等 要所는 붉은 벽돌과 회색 벽돌과를 区分 使用하고 있는것을 볼 수가 있다. 이렇듯 精巧하게 다듬어져 있는 것이다.

고딕樣式이란 本來 石造에 依하여 그 精巧함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그 當時의 事情으로는 石造로서는 도저히 不可能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리 石造로 計劃하였던 內部의 기둥 마저도 벽돌로 변경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規模를 살펴서, 建物 總 길이 69m餘, 幅28m, 本堂 總 23m, 塔高 45m이다. 平面型은 라틴 十字型, 三廊式이고 樣式은 물론 고딕式이다. 面積은 454坪 主出入口(Narthex)部分에서 부터 그 天井 構造가 그로인·보울트(Groin Vault)式으로 되어있고 모든 窓은 뾰족 아아치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車輪窓(Wheel Window), 또는 장미창(Rose Window)으로 トレ서리(Tracery)에 代身하고 있다. 內部도 네이브部分과 아일部分의 各 Bay는 고딕의 精髓인 리브·보울트(Rif Vault)로 構成되고, 各窓은 스페인드·그라스로 장식되어 고딕적 空間을 빛어 내고 있다. 事實 이 聖堂의 內部는 外部보다 더 고딕적이다. 그것은 石材 아닌 벽돌로 지을 수 밖에 없었다는 構造上의 제약에서 오는 外觀의 比較的 빈약함 代身에 그것을 殼으로 하는 內部는 하나의 空間으로서 完壁할 수 있는 理由도 있었다.

실지 內部의 壁과 天井에는 벽돌면에 회칠하고, 기둥과 리브만 素地대로 남겨 놓았음은 고딕적 手法이 아닐지는 모르나 고딕적 空間의 分圀氣를 살리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것이다. 한편 外觀을 더 빈약하게 하는것은 지붕에 이은 黑色 합석과 本堂 높이보다 比例的으로 낮아보이는 鐘塔이라고 생각한다.

##### 3. 明洞 聖바로 修女院과 保育院

明洞 聖 바로 修女院과 保育院은 1880년부터 始作하여 1885년에 곤당골(美洞-現 乙支路)과 鍾路 동골(東谷-現 貫鉄洞)의 韓屋에서 고아와 양노사업에 전심하던 불랑(白) 신부는 그 事業의 發展을 위하여 修女들에게 맡길 것을 決心하여, 1887年 佛蘭西 샤르프르의 聖 바로 修女院에 修女의 파견을 요청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888年 7월에 2名의 佛人 修女와 越南사이공에 있던 2名의 中國人 修女가 入國하였고 이를 계기로 지원한 韓國人 修女들과 함께 고아 구제사업을 맡게되어 같은 9월에는 곤



말한다면 西洋의 教育思想은 東洋보다 價值觀이 광범위하고 教育目的이 분파적이다.

따라서 東西洋의 思想은 根本的으로 出發點이 다름을 알 수 있으며 동시에 이렇게 다른 思想을 나타내고 있는 建築樣式 또한 다르고 달라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韓國은 近世初期를 起點으로 하여 西歐에서 부터 그들의 思想을 받아들였고 同時에 그들의 建築樣式을 받아들여서 지금에 이르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弘益人間 思想」을 變遷되는 社會實情에 尙한 形態로 構築 하기도 前에 西歐思想에 몰두해 버리고 있다. 이는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기 까지 여러가지 方法으로 스며들기는 하겠으나 特히 建築樣式을 通해서 위와 같은 경우가 빨리 생겼다고 보아야 하겠다. 왜냐하면 인간은 物質的 環境에 가장 빨리 影響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思想 구축은 고사하고 서양건축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서구 사상화는 우리의 사상을 구축할 수 있는 잠정적인 가능성마저도 파괴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說明하기로 한다.

우리의 弘益人間 思想을 구축할 수 있는 建築 樣式 은 實際로 「弘益人間 思想化」해야 한다. 즉 「利他主義化」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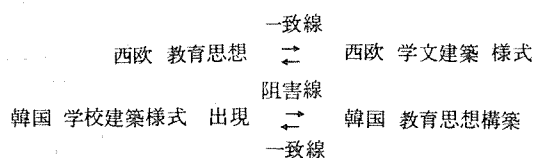
이러한 思想이 담긴 建築 樣式을 筆者는 「逆系線的인 建築樣式」이라고 붙여본다. 「逆系線的인 建築樣式」이란 命令線(系線, 또는 階層線)을 따라 내려오면서 量的으로 나 質的으로 크고, 好條件을 形成하는 樣式이다. 그러니까 校長이나 先生은 學生들의 房보다 작고 施設·設備가 單順하고, 學生들의 房은 先生의 房보다 크고 施設·設備가 具體的으로 建築되는 경우이고, 후배와 선배 사이도 선생과 학생 사이와 마찬가지로 말한다.

그러나 西歐建築 樣式은 이와는 反對이다. 따라서 西歐建築 樣式은 韓國 教育思想 構築을 阻害하고 있다.

## 2. 韓國 學校建築의 出現을 阻害하는 西歐 教育思想

앞에서 西歐建築 樣式이 韓國 教育思想의 構築을 阻害하고 있다고 말한바 있다. 그말을 계속 연결하면 韓國 教育思想의 構築에 阻害가 오니까, 그 結果 韓國 學校 建築의 出現까지도 阻害받으므로, 結局 阻害의 主要因(Original Factor)은 西歐 教育思想인 것이다(表參照).

〈表〉 西歐와 韓國의 學校建築 樣式과 教育思想과의 關係



그러면 여기서는 西歐 教育思想을 좀더 具體的으로 說明하기로 한다.

### 1). 古代 西歐 教育思想

原始時代에 原始人은 自然과 動物 그리고 神에 對하여 絶對的이었고, 이에 準해서 그들의 家庭生活의 哲學이 形成 되었으며, 特히 家庭을 中心한 子女의 教育도 이러한 絶對的인 對象을 設김으로서 生活의 위협을 예방조차 하는 巫敎가 그들의 지배적인 教育思想이었다.

이와같은 것은 韓國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古代 希臘·羅馬時代를 보면 하나의 都市國家를 形成하여 他國家와의 交易, 및 戰爭 등으로 國方을 지키기 위하여 國力을 튼튼히 할 수 있는 教育을 目的으로 教育의 軍國主義思想도 있었고, 또는 Athens와 같이 自然에 위협이 적은 都市國家는 民族的·民主的·自然的인 教育思想을 갖기도 했다.

어찌했든 古代는 陶冶理想으로 自然主義, 現實主義, 人文主義, 教育思想이 그 特徵이었다.

### 2). 中世 西歐 教育思想

그러나 中世에 와서는 宗教思想이 곧 教育思想 이었다 이때는 基督敎를 中心하여 來世主義的 教育思想을 지녔다.

이와같은 思想을 土臺로한 中世의 教育은 古代人들이 要求했던 人間의 調和있는 人格의 陶冶를 理想으로한 教育과는 判異한 것이었고, 禁慾主義的이요, 體育을 輕視하고 忍耐와 辛苦를 中心으로 한 忍苦精神을 重視하였다. 그리고 古代 教育 思想은 神中心 主義였으니, 自然을 中心으로 하여 兒童의 人格調和의 發展을 가진 思想으로 多方面으로 兒童의 興味를 傾注하려 하였다. 이에 反하여 中世의 教育은 오로지 兒童의 心意의 發達은 神을 中心으로 하여 그의 思考를 一方的으로 志向시켰다. 神을 尊敬하고 神을 믿고 神에 服從하는 것에 全力을 集中 하였다. 神을 中心으로한 敎敎主義 敎授方法이 자리를 차지하였다. 敎授는 엄격히 감독되고, 基督敎와 關係없는 學問은 유해한 것으로 排斥되고 自由研究는 認定되지 않았고, 神과 敎會와 寺院에 忠實한 것만이 容納되었다.

또한 古代 希臘의 教育思想은 人文主義를 土臺로한 理性的 陶冶를 重視하며 理智를 所重히 여기었던 一種의 主知主義이었다. 中世의 教育思想은 神에 對한 絶對的인 服從을 土臺로한 主情主義이다. 兒童의 宗教의 情緒의 陶冶가 中世教育의 뚜렷한 目標이었다.

家庭教育도 學校教育도 社會教育도 神에 對한 敬處한 心情을 涵養시키는 使命이 있었다.

이는 希臘·羅馬의 古典文化에 依하여 自由教育의 思想이다. 이러한 自由教育의 思想은 中世教育的인 形成과 不自然에서 離脫된 豐富한 內容을 가지게 되어 希臘·羅馬教育의 內容을 復活시켰다.

中世에서 武士教育의 內容을 제외 하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體育이 새로이 중시되었다. 강건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의 조화있는 발달이 요청 되었다.

일상 생활과 현실사회에 새로운 의미를 찾아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思想은 希臘 教育思想家인 Socrates, Plato, Aristotle 등이 주장했고, 羅馬時代에 와서는 Cicero, Quintilian 등과 같은 學者들이 계승하였다. 이 思想은 超自然的 超現實的, 禁慾的인 것을 重視하는 基督教內 教育思想에 背馳된다. 또한 이 思想은 物質的 이익만을 바라보며, 經濟的, 이해타산만을 생각하는 生活에 구속된 극단의 實利主義와도 反對된다.

이리하여 中世의 超現世主義, 來世主義의 陶冶 思想은 古代와 對立되어 전혀 새로운 人生觀 내지 世界觀을 만들고 中世의 特殊한 教育思想을 形成하였다.

### 3). 文芸復興期の 西歐 教育思想

그 후 文芸復興期에는 그 教育思想이 人文主義(Humanism) 혹은 人道主義라고 본다. 즉 人間의이라 함은 사람을 사람답게 教育하고자 하는 教育思想을 다시 주는 道義 教育이 요청되며 자연의 美와 人間의 美를 認證하려는 文芸運動은 예술, 정서 등의 교육, 문학감상을 부흥시켰다. 이러한 調和있는 多方面的 教養이 人間이 가져야 할 美德이며, 人文主義者가 力說한 것과 같이 덕의 학습과 教養은 人間이 가지는 고유한 것으로 自由教育思想을 설명할 수 있다.

### 4). 宗教改革 時代의 西歐教育思想

自然의 自覺을 原動力으로 한 文芸復興의 大精神은 漸次로 人間의 知識的 批判적 精神을 길러왔고, 이는 宗教의 腐敗와 隨落을 攻擊하는 날카로운 立場으로서 마침내 宗教改革을 일으키게 되었다. 즉 로마교회의 주장을 最高 唯一한 真理로 삼던 基督教의 腐敗性을 改革하고 참된 信仰이란 僧侶라든가 教會의 贖罪符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하느님 사이의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믿음에 있다는 것을 強調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인 聖書의 尊嚴性을 부르짖게 된 것이다. 이를 要略하면 사람은 信仰에 의해서만 하느님 나라에서 生存할 수 있다. 聖書는 하느님의 거룩한 말씀이며 直接 사람에게 神의 路程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굳은 信念에 立脚하여 良心의 自由와 理性의 權威를 高唱하여 羅馬教會의 敎權을 輕視한 것이다. 이러한 양심의 自由와 理性의 權位를 強調하는데서 自我의 自覺運動인 文芸復興의 精神이 赫赫하게 나타나 있다.

### 5). 實學主義·自然科學 時代의 西歐 教育 思想

그後 17世紀의 구라파는 科學의 意義와 實際性的 價値를 認定하게 되었고 이를 軍事와 醫藥에 應用하게 되었다.

教育도 自然科學과 손잡고, 宗教的, 政治的 自由와는 새로운 理論을 받아 드리게 되었다.

哲學 科學 現代語의 發展으로 教育은 實學主義的 傾向으로 지향하게 되었다.

Bacon, Locke, Descartes 같은 哲學者, 科學者가 나타나서 科學의 重要性을 역설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學校는 낙관주의적 태도로 教育, 社會自体와 밀접한 關係를 맺게 되었는데 學校는 產業教育·職業教育을 지지 하였다. 이때까지 學校는 말과 概念을 다루어 왔으나, 實物教材와 연장을 소개하고 貿易과 商業을 學生에게 가르쳤다.

實學主義의 教育은 實用性과 實踐性을 갖춘 具體的 知識이라든가 實際的 職業的 技術이라든가 文學的인 것이 아니라 商業과 外交에 必要한 言語라든가 政治, 法律, 自然科學 같은 것을 重視하게 되었다. 實學主義가 發達함에 따라 教育은 文學과 美術을 目的으로 삼던 古典中心 教育을 부정하고 自然科學과 技術教育을 重視하며 實生活에 適合한 實學教育을 肯定하였다.

### 6). 啓蒙時代를 中心한 西歐教育思想

18世紀에 와서는 中世以後의 傳統·社會制度·人生觀·世界觀이 文芸復興 및 宗教改革의 試驗을 받고 새로운 方向으로 움직이던 時代였다. 指向하는 새로운 路程이 過去의 弊狀을 一掃하고 近代의 새 文化와 새 思想을 建設하는 社會의 터를 닦았다. 낡은 因習과 傳統은 理性에 비추어 비판하고 事物을 科學的 方法에 입각하여 觀察하며, 人間生活을 合理的으로 영위하고자한 時代이다.

18世紀 當時의 사람은 구라파의 絶對主義의 政治體制, 구속된 經濟組織 엄격한 階級制度, 宗教的 權威主義 비 과학적 人生觀 및 世界觀을 무자비하게 비판하였다. 이러한 불만과 弊狀을 일소하려면 啓蒙思想은 理知的 啓發과 科學的 合理性을 토대로한 時代的 使命으로 나타났다. 科學的 運動이 世界自然을 對象으로 하는 것에서 옮겨서 人間自体를 對象으로 하는 것이 되겠다.

18世紀 教育思想의 特色은 現實的으로 實科教育을 重視하며 科學置重教育을 그리고 自然으로 기울어져 이 事상을 合理的인 것으로 지향하였다. 自然의 길로 쫓아가는 것은 人間性의 길로 쫓아가는 것과 똑같은 理致라고 주장한 것을 Pestalozzi에서 볼 수 있다. 自然的 直觀的 教育은 理性을 토대로한 教育이다.

그리고 自然的 教育을 合理的인 教育으로 삼았다.

18世紀의 教育思想은 社會的 俸仕的 時代이다. 이때에 貧民 學校 特殊學校 등이 생겼다. 18世紀 에는 社會的 啓蒙思潮가 國家를 發展시키고 同時에 教育을 國民的 大衆主義로 이끌어 주었다. 이 때에는 教會와 國家는 分離되어 學校는 國家가 管理를 하였다.

## 7) . 19世紀의 教育思想

19世紀의 教育思想은 一般國民의 義務教育化, 対象教育, 國家主義의 發達을 가져 왔다. 國家는 富國이 되고, 強兵을 所有하기 위하여 知的 道德的 肉體的으로 造和 있게 訓練을 받은 個人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보통 教育을 실시하고 자기나라의 國民의 教育 水準을 向上시키려는 운동이 各국에서 발생하였다. 따라서 教育을 관리하고 國民의 教育을 책임지며 수업료도 받지 않고, 兒童을 통학시킬 수 있는 公立學校를 주장하고 의무교육을 주장하기에 이르렀고 이때에 複선형 教育 制度가 생겼다.

## VI. 結 論

以上에서 보았듯이, 學校建築 樣式은 教育思想을 構築하는 것이며, 同時에 教育 思想은 學校建築 樣式을 出現시키는 關係를 갖고 있다.

이러한 思想과 樣式의 關係는 前者가 內的인 位置에 있다면 後者는 外的인 位置에 있음을 筆者는 本研究結果에서 시사점으로 던지고 싶다.

現 韓國 學校建築 樣式은 歷史的으로 볼 때 近世初期를 起點으로 始作하여 西歐 學校建築 樣式의 變型이요, 그 속에서 韓國 國民은 教育法에서 分明히 明示된 教育目的인 弘益人間 思想을 涵養하는 것으로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의 現在 學校建築 樣式과 弘益人間 思想을 앞에서 말한 樣式과 思想의 一致라는 前提에서 놓고 볼 때 逆關係라기 보다는 서로 異質的인 兩者인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關係속에서는 國民에게 어떤 教育思想도 涵養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異質的인 樣式속에서는 심어져 있던 教育思想마저도 말살되는 것이다. 이러한 點에서 筆者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課題를 本論文에서 建築史的 整理를 통해서 研究를 하였던 것이다. 즉 課題 첫째는 西歐의 建築樣式의 變型과 韓國 教育 思想인 弘益人間 思想은 서로 異質的인 關係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둘째로 韓國 教育思想인 弘益人間 思想과 一致하는 韓國 學校建築 樣式의 出現도 可能하지 않겠는가? 셋째로, 그러면 現存하는 西歐 建築樣式의 變型과 並存하는 西歐 教育思想과는 이들이 어떤 關係가 있는가? 하는 것들이다.

그리하여 앞에서 提示한 「西歐와 韓國의 學校建築 樣式과 教育思想과의 關係」를 얻었으며, 同時에 우리의 弘益人間 思想의 變型된 時代의 特徵을 中心으로 한 思想이 왜 構築되지 못했는가 하는 것은 그간 外來思想의 導入을 그 原因으로 보고 있다, 단 近世以前의 韓國 教育 思想은 存在했으나 이것은 東洋의 儒·佛敎 思想으로 우리의 弘

益人間 思想과 相通하는 點이 많고보니 즉 弘益人間 思想이나 儒敎思想이나, 또는 佛敎思想은 모두 個人의 修身에서 出發하며 그 수신은 家庭—社會—國家—國際로 까지 그 指導力을 펼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近世를 접어 들면서 이와는 전혀 다른 西歐의 宗教의 人文的 科學的 社會的인 思想이 혼합되어 導入되었다. 물론 이러한 思想을 배척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思想的으로나 樣式面에서 너무도 主體성이 없고 主觀성이 없으며, 남의 것을 무조건 내 것처럼 잘못 소화하다가 보면 스스로 자기의 教育사상을 말살시켜버리는 結果가 무서운 것이니 자칫 잘못하면 자승자박격이 되기 쉽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루속히 우리의 教育思想은 우리의 學校建築 樣式을 出現시켜야 하겠으며 우리의 學校建築 樣式의 出現을 위해서 現 西歐 建築 樣式 가운데 이에 阻害를 주는 主要因을 빨리 제거 작업에 나서야 할 때라고 본다.

## 參 考 文 獻

### 〈洋 書〉

1. Alfred Roth. The New School, N. Y.; Frederick Praeger, 1957.
2. Basil Castaldi. Creative Planning of Educational Facilities. N. Y.; Rand McNally & Co., 1969.
3. Edgar W. Knight. Education in the U. S., (3rd ed.), Boston; Ginn and co., 1951.
4. Ellwood P. Cufferley. The History of Education, N. Y.; Houghton Mifflin Co., 1948.
5. Erika Brodner & Immanuel Kroeker. Schulbauten, München; Verlag Hermann Rinn, 1971.
6. Malcolm Seaborne. Primary School Design,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1.
7. Patrick McCormick & Francis Cassidy. History of Education, N. Y.; Catholic Education Press, 1953.
8. R. Freeman Butts. A Cultural History of Education. N. Y.; McGraw-Hill Co., 1947.
9. Russell Sturgis. History of Architecture. N. Y.; Doubleday, 1916.
10. The Gospel in All Lands for 1888.
11. The Korean Repository. Vol. 1. No. 3. 1882.
12. William A. Smith. Ancient Education. N. Y.; Philosophical Library. 1955.



〈韓 書〉

13. 高雨史(卷74), 学校考.
14. 朴相萬. 韓國教育史(上). 서울:大韓教育联合会, 4291.
15. 朴俊熙. 韓國人の 教育觀, 서울:実学社, 1975.
16. 培材史, 1955.
17. 三國史記(卷8). 新羅本紀(第8), 神文王二年.
18. 申榮勳, 韓屋과 그 歷史, 서울:東美文化社, 1975.
19. 吳天錫. 韓國新教育史, 서울:現代教育叢書出版社, 1964.
20. 柳宗悅. 朝鮮文芸術(朝鮮力木工品項) 参照).
21. 尹一柱. 韓國·洋式建築 80年史, 서울:治庭文化社, 1972.
22. 尹張爨. 西洋建築史. 서울:文運堂, 1973.
23. 尹張爨. 韓國建築史, 서울:東明社, 1974.
24. 林漢永. 教育思想史, 서울:修文閣, 1958.
25. 李萬珪. 朝鮮教育史(上), 서울:乙西文化社, 1947.
26. 鄭寅國. 韓國建築樣式論. 서울:一志社. 1974.
27. 鄭寅國. 現代建築論. 서울:治庭文化社, 1970.
28. 鄭忠良(편), 梨花七〇年史. 서울:梨大出版部, 1957.
29. 鄭忠良(편), 梨花八〇年史. 서울:梨大出版部, 1967.

---

新刊

韓國建築史大系 V 建築과 文樣上卷

新羅의 기와

注意: 이책에 실린 圖版을 資料나 挿圖로 이용하는 일은 장려될만 하지만 이것으로 刊行物을 어떤 형태로든 꾸미는 일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값 6,000원

連絡處: 東山文化社 76~7663

---